

# 최근 전자부품산업 위축 가시화에 따른 지역의 영향

-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산업 환경이 급변하며 제조업 대전환기도 빠르게 도래
- 지역에서는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산업에서도 활발한 전환기 진행 중이나 이러한 제조업 전환기를 적응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둔화를 넘어 침체 우려가 지속되며 지역 경기에 주요 하방요인으로 작용
- 최근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 중 상대적으로 전자부품산업과 연관된 전방산업(가전, 스마트폰 등)의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어 지역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자 함.

## 1 분석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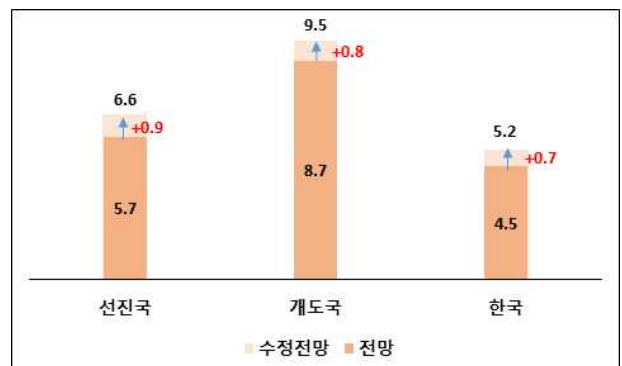
### □ 글로벌 경기둔화 움직임

- 금년 하반기 경제성장률 예상치 하회, 물가는 상승하는 슬로우플레이션 진행
  - 특히, 제로코로나 일환으로 도시봉쇄 정책이 진행 중인 중국의 경제성장둔화가 눈에 띄는 것으로 판단
  - 이어 적극적인 긴축정책으로 인한 미국도 경제전망은 다소 위축되는 상황
  - 주요 생산국과 소비국이 모두 경제성장률 저하가 예상됨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도 글로벌 거시환경에 따른 위축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 \* (하방요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예상보다 심각한 인플레이션, 코로나19 팬데믹 지속으로 공급망 문제 장기화, 중앙은행의 통화긴축 정책 등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IMF, %)



물가 전망(IMF, 한국은행)



자료 : IMF경제전망보고서(2022.7월),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주 : 전망은 4월, 수정전망은 7월을 의미함. 다만, 한국 물가전망은 전망이 5월, 수정전망이 8월임

## □ 전자부품산업의 위축 가시화

○ (산업내 구조 변화) LCD → OLED로 전환, 가전제품의 프리미엄화, 스마트플랫폼 구축 등으로 기존 산업 구조 개편이 요구

- 삼성디스플레이 LCD 철수, OLED 전환 / LG전자 휴대폰 사업 철수 등
- 삼성, LG 등 가전제품의 프리미엄화로 시장을 확대하는 중

\* 금년 상반기 백화점 가전 매출은 1.2% 증가, 기타 전문점(-11.7%)·대형마트(-8.6%) 감소

○ 생활가전제품 성장률 감소와 주요 가전제품 기업 재고 증가에 따른 부담 가중

- GFK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국내 가전 시장 전년대비 4.6% 감소(33개 대표 가전 제품, 매출기준)
- 지난해 4분기부터 성장세 둔화, 고금리·고물가로 내구소비재 수요심리 위축
- 국내 TV 점유율 약 50%를 차지하는 주요 기업의 재고 증가도 부담

\* 삼성전자 DX부문 재고증가 : 20.3%(전년말대비)

\* 상반기 TV 시장 점유율(%) : 삼성전자 31.6%, LG전자 17.6% (자료 : 각 사 반기보고서)

주요 기업 생활가전 재고자산 추이(백만원)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규모 감소, 스마트폰 제조사의 차등화 전략 등으로 인한 대응능력 저하

- IDC에 따르면, 금년 세계 스마트폰 시장규모 전년대비 6.5% 감소 시사
- 아이폰14 초도 물량 600만대 증산 계획 철회, 하반기 물량 감소 예상되며 고성능 일부 제품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물량 확대에는

한계가 존재

- 하반기 중국 기업들의 공격적인 신규 스마트폰 출시가 예상되고 있으나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다양한 사양의 제품을 출시하는 차등화 전략 등은 전자부품 산업의 유연성을 담보로 하고 있어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
- 글로벌 기업과 연계된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흐름을 따라가기에 역부족

⇒ 가전제품, 스마트폰 수요 둔화, 급변하는 트렌드의 변화 → 디스플레이·반도체 수요 둔화 → 관련 부품·소재 등으로 전이

## ② 도내 전자부품산업 동향

### □ 외형적으로 성장, 낮아지는 고용안정성

○ 사업장수 499개, 피보험자수 약 2만 1천명

- 액정디스플레이 제조 등이 포함된 전자부품 제조업이 약 50% 이상을 차지

전자부품 등 제조업 세부산업별 사업장수 및 피보험자수 추이

구분	사업장수(개)				피보험자수(명)			
	'21.8월	'22.8월	증감률	비중	'21.8월	'22.8월	증감률	비중
전자부품 등 제조업	467	499	6.9	100.0	20,693	21,109	2.0	100.0
반도체	105	120	14.3	24.0	7,310	7,579	3.7	35.9
전자부품	272	283	4.0	56.7	11,160	11,509	3.1	54.5
컴퓨터 및 주변장치	29	30	3.4	6.0	265	247	-6.8	1.2
통신 및 방송장비	44	48	9.1	9.6	1,277	1,301	1.9	6.2
영상 및 음향기기	17	18	5.9	3.6	681	473	-30.5	2.2

자료 : 고용보험 비정형통계

○ 외형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최근 수요가 급감한 산업에서는 고용 감소가 시현되며 위축되는 모습

- 성장을 견인한 것은 반도체, 컴퓨터 등 코로나19 수혜로 성장하였던 산업이 수요 감소로 역성장하며 민감하게 반응

- 중개거래가 다수인 컴퓨터 관련 업종과 통신 관련 부품사 등은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크게 위축되며 고용도 감소
- 또한 최근 전자부품산업의 고용안정성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상황으로 인식
  - 도내 주력산업의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현황을 보면, 점진적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전자부품 제조업의 회복력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
  - 전자부품 등 제조업의 세부산업별로는 통신·방송장비 제조업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

도내 주력산업별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건수 추이(누계, 건)

구분	'18.8월	'19.8월	'20.8월	'21.8월	'22.8월	증감률
화학	295	698	705	781	692	-11.4
1차금속	113	197	163	194	110	-43.3
전자부품 등	279	635	974	802	687	-14.3
반도체	100	264	297	319	225	-29.5
전자부품	154	290	313	396	373	-5.8
컴퓨터·주변장치	8	20	17	18	8	-55.6
통신·방송장비	8	46	30	44	70	59.1
영상·음향기기	9	15	17	25	11	-56.0
자동차	541	758	1,073	891	707	-20.7

자료 : 고용보험 비정형통계

- 산업내 비중이 낮지만 통신·방송장비 제조업은 전 규모에서 부침이 지속, 채용과 유지를 위해서 정부지원금이 필요한 기업이 늘어난 모습
  - 통신·방송장비 제조업은 전 규모에서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증가, 전자부품 제조업은 중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급이 증가
- \* 일부 산업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중규모 사업장의 소규모화 진행, 이후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정부지원금이 필요한 상황이 지속되며 지급건수는 늘어난 상태

세부산업의 규모별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건수 추이(누계, 건)

구분		10인 이하	10-99인	100인-299인	300인 이상	합계
전자부품 등	'21.8	102	272	156	272	802
	'22.8	55	233	167	232	687
	증감률	-46.1	-14.3	7.1	-14.7	-14.3

구분		10인 이하	10-99인	100인-299인	300인 이상	합계
반도체	'21.8	17	96	20	186	319
	'22.8	8	67	4	146	225
	증감률	-52.9	-30.2	-80.0	-21.5	-29.5
전자부품	'21.8	56	151	115	74	396
	'22.8	30	137	144	62	373
	증감률	-46.4	-9.3	25.2	-16.2	-5.8
컴퓨터·주변장치	'21.8	13	5	-	-	18
	'22.8	8	-	-	-	8
	증감률	-38.5	-100.0	-	-	-55.6
통신·방송장비	'21.8	10	12	10	12	44
	'22.8	9	22	15	24	70
	증감률	-10.0	83.3	50.0	100.0	59.1
영상·음향기기	'21.8	6	8	11	-	25
	'22.8	-	7	4	-	11
	증감률	-100.0	-12.5	-63.6	-	-56.0

자료 : 고용보험 비정형통계

- 더불어 실업급여 추이를 보면, 최근 가격하락과 수요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서 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지역 경기를 견인하던 주요 산업의 위축이 가시화

\* 철강은 대체로 정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많은 반면, 전자부품과 반도체는 경영상 필요와 회사의 인원 감축에 의한 권고사직이 실업급여 신청자의 50%를 상회, 화학과 자동차는 계약만료가 주를 이룸

#### 세부산업별 실업급여 신청자수 추이(누계, 명)

구분	'18.8월	'19.8월	'20.8월	'21.8월	'22.8월	증감률
전자부품 등	756	923	644	676	637	-5.8
반도체	157	98	84	79	143	81.0
전자부품	350	548	249	306	282	-7.8
컴퓨터·주변장치	12	14	23	32	21	-34.4
통신·방송장비	36	44	43	40	31	-22.5
영상·음향기기	201	218	245	219	160	-26.9

자료 : 고용보험 비정형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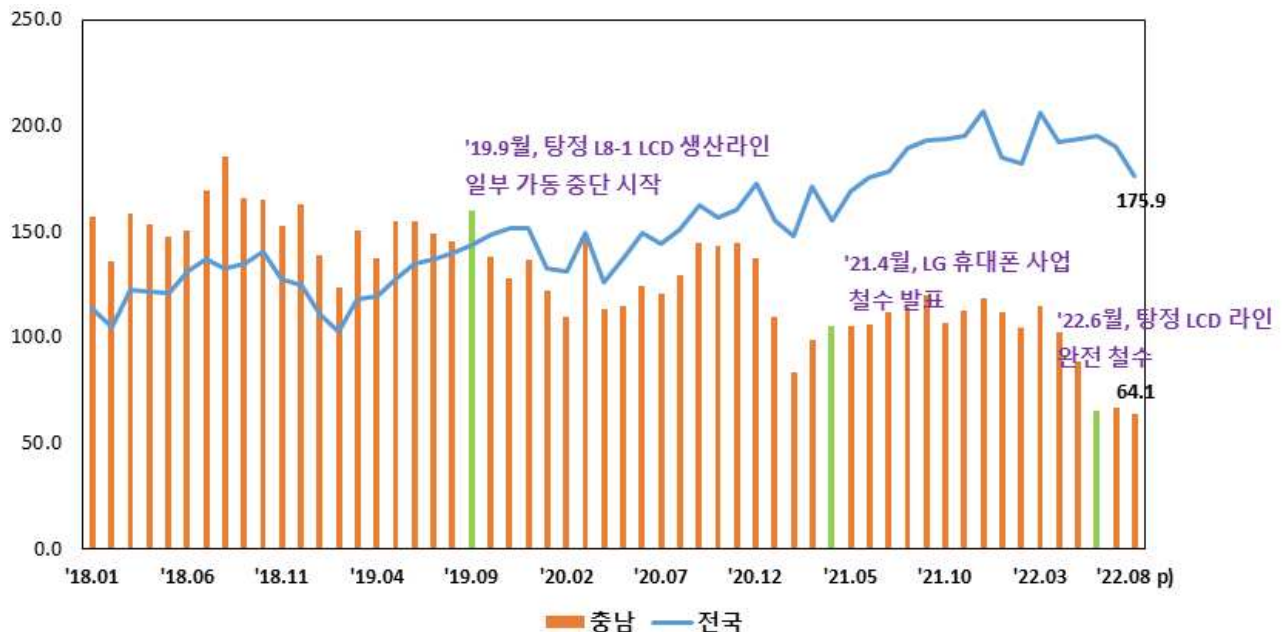
## □ 생산과 주요 수출품 감소 뚜렷

○ 지역의 전자부품 등 생산 감소는 LCD 라인 철수에서 대체로 기인

- 2019년 LCD 라인 철수가 시작된 시점부터 전국 전자부품 생산지수 보다 하회
- 반도체 호황기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코로나19 수혜로 개인 IT 제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며 생산이 회복
- 이후 LG 휴대폰 사업 철수와 금년 6월 LCD 라인이 완전 철수하면서 생산지수가 급감한 모습

\* LG 휴대폰 사업 철수를 앞두고 2개월 선행하여 생산량이 감소한 모습으로 전체 산업내 비중이 낮아 영향력은 다소 미미

### 전자부품 등 제조업 생산지수 추이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생산지수(2015=100)

○ 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 등 모두 품목에서 수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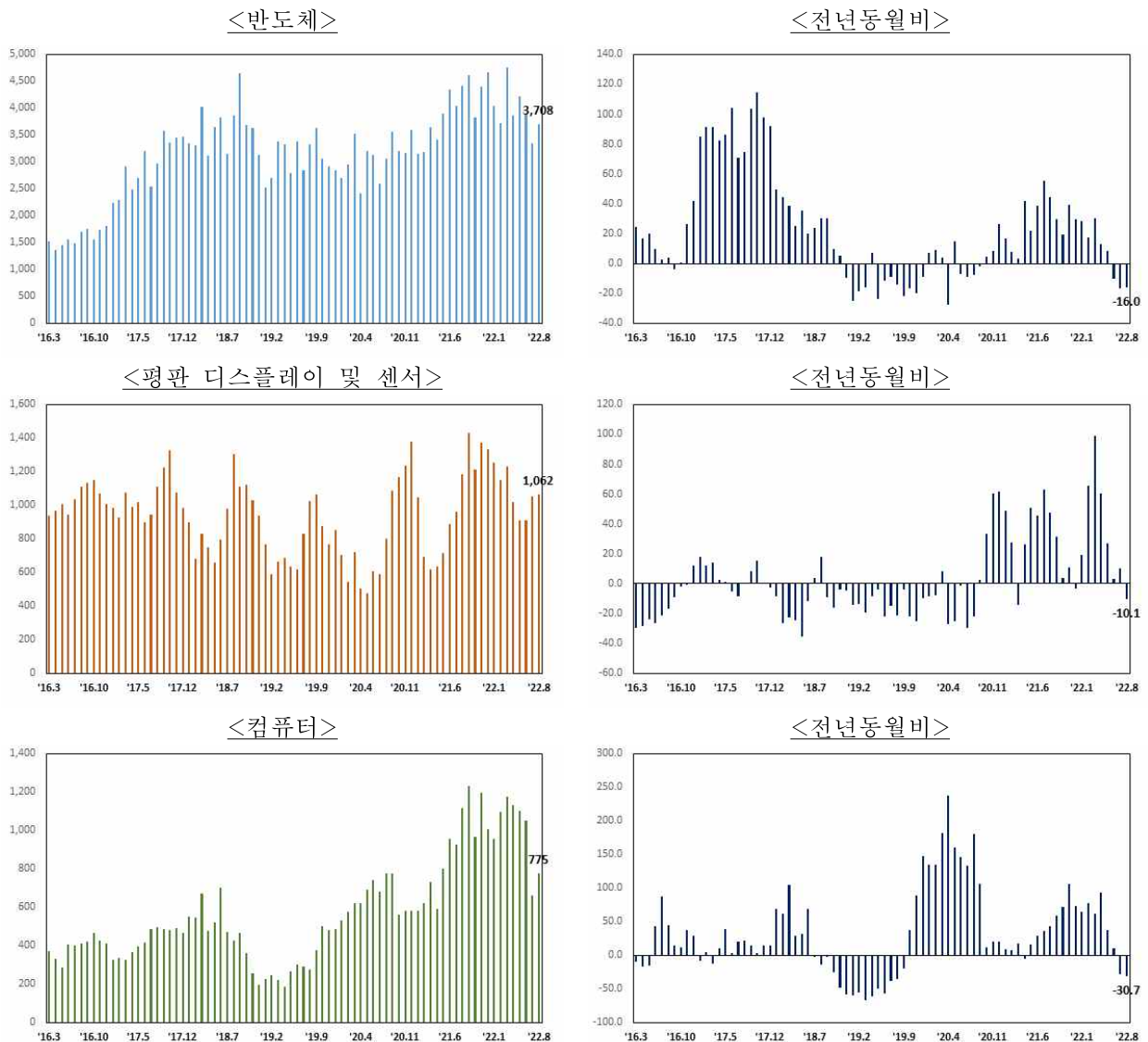
- 반도체는 가격하락이 수출액 감소를 주도, 물량은 금년 8월 감소세 전환
-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는 실질적으로 금년 5월말로 LCD 생산이 중단되면서 수출단가(0.89('21.8월) → 1.67('22.8월,천불/kg))는 상승, 중소형 OLED 생산으로 수출 물량도 감소

\* 수출물량 : 금년 8월 전년동월대비 52.5% 감소한 635톤('21년 8월 1336톤)

- 컴퓨터 수출은 세부 품목으로 보면 전산기록매체(외장하드 등) 완제품이 아닌

부분품으로 최근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시현, 물량으로는 지난 4월부터 위축

###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 추이(백만불,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지자체통계, MTI 3단위 기준

## □ 전방산업 변화가 전이된 부품·소재 관련 기업 ⇒ 실적 악화·재고 증가

○ (유티아이) LG 휴대폰 사업 철수로 매출 및 영업이익 급감

- 삼성전자 1차 협력사로 향후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 확대에 따른 강화유리 수주가 예상되나 현재까지 실적 악화 중

○ (대양금속) 하반기 가전시장 수요 둔화 가능성이 관련 기업으로 전이, 높은 제품 재고율 기록

- 주로 생활가전제품 스테인리스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코로나19 수혜로 금년 상반기까지 실적은 양호
- LG전자 신규 식기세척기 수주 등으로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 전년동반기대비 재고자산 63.7% 증가하며 하반기 가전시장 수요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일시적 부침이 예상

\* 21.상반기 제품 재고 없음. 22.상반기 159억원 발생

### 도내 관련 기업 실적 및 재고자산 추이(원, %)

구분	유티아이				대양금속		
	'20.상	'21.상	'22.상	증감률	'21.상	'22.상	증감률
매출액	23,311,099,038	10,254,740,375	2,607,272,402	-74.6	84,473,730,122	139,775,454,889	65.5
영업이익	1,099,575,334	-4,504,218,169	-9,759,919,258	-116.7	3,915,742,101	19,037,312,408	386.2
재고자산	6,641,450,289	4,841,083,459	4,742,816,293	-2.0	31,526,923,559	51,611,942,477	63.7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 각 사 반기 사업보고서

## ③ 현장 기업 인터뷰

※ 현장기업 인터뷰는 통계 등으로 영향이 미미하거나 관측이 불가능한 부분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보완적 방법으로 본 사례에서는 소기업을 중심으로 진행

### □ 국000스

#### ○ 일반현황

- 천안시 소재, 디스플레이(LCD) 광학필름 제조업체
- 규모 : 약 50명(현재 12-14명 출근 중)
- 주거래처 : 삼성SDI(삼성전자 2차벤더)
- 업종 : 반도체(실질적으로 전자부품)
- 자체 기술연구소 有, 연구인력 주로 대졸(4명 수준)

○ 주요 생산품은 LCD TV 광학필름으로 주로 55인치와 65인치가 주력, 3년 전부터 삼성SDI 납품을 시작으로 성장



- 3년 전만 해도 70명 정도 규모를 유지하였으나 최근 자발적 이직이 늘어나며 50명 수준으로 감소
- 주요 위축 사유는 가전제품 수요 둔화로 실질적인 수주가 없기 때문
  - 지난 7월부터 수주가 없어 유급휴직에 돌입, 기본급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하고 회사에서  $+a$ 를 지급
  - 대기업은 보통 한가지 아이টে 중소규모 기업을 2-3개 업체를 지정하여 잘하는 아이টে 집중 발주하는 형태로 운영하는데 3년 간의 노력으로 55인치와 65인치에서 인지도를 쌓았으나 최근 수주가 전무한 상태
  -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금년 하반기까지는 견뎌볼만 하지만 그 이후에는 방법이 없음. 다만, 내년 하반기에는 경기가 조금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그때까지 버티는 것이 1차 목표
- 설비 증설, 거래처 다변화, 제품 연구 등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조건 충족이 힘든 상황
  - 다양한 아이টে(예를 들어 최근 판매실적이 양호한 대형 OLED TV)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증설 여력은 없음. 중견기업 정도는 되어야 가능한 이야기, 예전에는 광학 필름 분야가 고부가가치 영역이었지만 현재는 기술 수준이 평준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대규모 설비투자를 감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거래처 변화를 위해 지난해 삼성전자와 직거래 거래처 등록도 마쳤으나 삼성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최종 성사가 되지 못함.(공장설비·생산관리, 경영체계 등에 대한 조건이 법보다 더 까다로움)
  - 제품연구는 수주처가 요구하는 사양에 대한 생산가능 여부를 판단하거나 국책 사업에 참여하는 수준, 먼저 제품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최종 수주처가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자체 신제품 개발에는 주력하지 않음
- LCD TV에서 OLED로 넘어가는 단계로 향후 사업다각화는 생각하고 있지만 광학 필름의 호환성 검증만으로도 약 1년이 소요되고 있어 단기 사업다각화는 무리
  - 다만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아직까지 ESG에 대한 개념도 불분명하지만(본인도 컨설팅 이후 ESG 개념을 숙지함) 우리는 향후 수주처의 ESG 경영 확대와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ISO를 획득하는 등 북부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하는 ESG 컨설팅 사업에 참여 중
- 단기 부침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정책 필요

- 현재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고 있지만 기본급외에 충족되는 부분이 적고,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후(6개월) 후속 지원 정책이 필요함
- 또한 실질적인 휴업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기, 수도 등 설비 관리, 세금 등 기본적인 경영업무는 진행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성(기본적인 전기세 등)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

## □ 우000콤

### ○ 일반현황

- 천안시 소재, 휴대폰 PCB기판 제조업체
- 규모 : 20인 이하
- 주거래처 : LG전자
- 업종 : 통신장비제조업

### ○ 2015년 400명 규모로 운영 → 50명 → 30명 → 현재 20명 수준으로 위축

- LG전자 휴대폰 사업 철수가 가장 큰 치명타
- 아직까지 공장과 임금 등은 유지하고 있으나 규모를 지속적으로 감축, 자발적 이직도 증가

### ○ 자금조달은 대표가 자체적으로 조달, 정부 지원금은 받지 않음

- 정부 등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는 팩스로 들어오긴 하지만 그 업무를 추진할 인력이 없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서류 작성과 요구되는 조건을 유지하는 것도 버거워 지원 자체를 하지 않음

### ○ 젠더 등 신규 사업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

- 사업·영업 등 운영을 총괄하던 직원(부장급)이 최근 퇴사하며 더욱더 추진 동력을 잃어버린 상황

## 4 요약 및 정책적 제언

### □ 전자부품산업의 위축 가시화

- 글로벌 경기둔화 움직임과 맞물려 생활가전, 개인 IT제품 수요 둔화
  - 더불어 제조업 대전환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업내에서도 구조 전환(LCD→OLED, LG 휴대폰 사업 철수 등)이 진행되며 전자부품산업 중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취약 부분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상황
  - 최근 삼성전자의 가전사업부의 재고가 전년말대비 20.3%나 증가하며 이러한 움직임을 대변함
- ⇒ 최종적으로 전방산업의 수요 둔화는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악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관련 소재와 부품사로 전이되어 취약 부분의 위험도를 높임

### □ 요약 및 시사점

- 최근 전자부품산업은 전반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고용안정성은 낮아지는 모습
- 코로나19 이후 도내 주력산업의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건수는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전자부품 제조업은 소폭 감소에 그쳤으며 중규모 사업장에서는 증가하는 모습, 경기둔화 영향이 확산될 우려 제기
- 실업급여 신청자 추이를 보더라도, 철강과 화학 등은 정년 또는 계약만료에 의한 요인이 많았으나 반도체와 전자부품 제조업은 경영상 필요와 회사의 인원 감축에 의한 권고사직이 실업급여 신청자의 50%를 상회하고 있어 더욱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함
- 생산과 수출 측면에서도 LCD 생산 중단, LG 휴대폰 사업 철수 등 이슈로 반도체가 선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부품 등 제조업의 전반적인 생산수준은 지속적으로 감소, 주력 수출 품목도 금년 8월을 기점으로 물량도 감소세로 전환되며 수요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기업의 실적악화와 재고수준 증가는 이미 진행 중
- 이러한 경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도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작지만, 전자부품산업내 취약 부분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소기업 대상 현장인터뷰를 실시하였는데, 통신장비 제조사의 경우 LG의 휴대폰 사업 철수로 인해 거래처 상실,

주요 인력의 이직으로 돌파구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며

- 가전제품 관련 부품 소기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상태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금년 7월부터 수주 전무)되나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기업활동을 이어가는 상황
- 충남은 주요 대기업이 이끄는 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통계적으로 이러한 기업들의 활동이 명확히 잡히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 부침에 의한 취약부분이 다수 존재할 수 있고 특히, 제조업 대전환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시적 부침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 수립이 중요한 시점임.

## □ 정책적 제언

- 지원에 앞서 단기 경기부침을 이겨내기 위한 현상유지 지원과 사업구조 전환 지원책으로 기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 마련 필요
  - 현상유지 이후 정상화 및 지속성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 단기 부침을 운영자금 융통, 세금 유예·감면 지원 정책 등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향후 지속가능성이 낮은 사업구조를 가진 사업체는 사업 전환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재교육 정책 등 고용정책과 연계
- (현상유지)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의 단기 지원정책 이후 ①후속조치에 대한 정책 수립과 ②필수인력 유지를 위한 지원 정책 필요
  -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은 수혜를 입은 기업이 이후에도 부침이 존재할 경우, 후속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저금리 운영자금 융통, 세금유예·감면 등의 지원책이 수반, 이 과정에서 간소화된 행정절차가 요구됨
    - \* ex)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4대보험, 공과금 납부 기간 유예 정책
  - 실질적인 휴업이라 할지라도 기업체 운영을 위한 필수인력은 휴직할 수 없고 이직으로 인해 기업의 향후 활력 저하가 우려되는 인력의 유출 방지를 위한 추가 지원책 마련
    - \* 고용유지지원금 1일 상한액 6.6만원, 6개월간 지급 가능(기타 세부사항별 지원금 상이)
- (사업전환) 기업별 보유기술과 연계한 사업다각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변화하는 환경에 적용하기에는 인력·재원 등의 한계가 존재, 정부의 지원책 연계·활용 등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기초적인 컨설팅 지원 강화 필요

\* 이종간 사업다각화보다는 동종간 사업다각화를 추진, 새로운 기술의 접목보다는 기존 기술을 다양화하거나 세분화하는 방법

#### ○ (중장기) 제조업 대전환기, 중·장기 세분화된 기업지원 정책 강화 필요

- 단기로는 산업 전환기 기업지원 자금 융통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도 기금 조성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중요

\*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전환, 차세대디스플레이, 초저전력반도체 등 산업은 유기적으로 변화하는 중

- 다만, 이미 전반적인 산업 전환기에 접어들었고,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제조업 전체에 대한 전환기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특정산업을 지정하기 어렵고,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세부산업 분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지원 범위를 한정하기보다는 제조업 전환기 기금을 조성, 활용하는 것이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더불어 ESG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비용과 책임, 역할이 증가하고 있어 글로벌·정부의 기능과 연계한 도 차원의 지원 조직 및 체계 구축 (지원대상, 규모, 방법 등)도 중요

\* 정부 탄소배출 MRV(측정·보고·검증)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22.9.30), 국내제도가 EU 등 해외고객사와 통용되도록 제고하고 현재 규모가 협소한 민간 검·인증기관을 육성하여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 등

\* SK그룹에 이어 삼성전자도 RE100 가입, 최근 삼성SDI도 RE100에 가입하며 계열사로 확대되는 모습

ex) 대기업과 협력사를 제외한 지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기준과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ESG 체계를 준용, 중간지원조직으로 컨설팅사 및 자문협의체를 구성하여 연 OO규모로 진행

- 특히 EU의 공급망실사제도(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전과정에 걸쳐 환경, 노동, 인권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 문제점 발견시 대응방안을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중국 신장위그르 지역 면화생산 인권침해), ESG 등은 환경과 사회적 책임, 조직구조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만큼 광범위한 영역을 고루 아우르는 역할이 수반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컨트롤 타워가 가능한 지원 조직 설계가 중요